

3. 종목별 체육활동

1) 육 상

육상경기는 1896년 5월 2일 서울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 : 지금의 삼선교)에 있었던 영어 학교 화류회에서 경기형태를 갖추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운동지도는 허치슨(W. D. Hutchison)과 헤리팩스(T. E. Halifax) 두 사람이 담당하였으며, 이 화류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가 되었다. 다음해인 1897년 6월 6일에 훈련원(지금의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영어학교 대운동회는 각국 외교사절과 정부의 대신 고관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식장은 만국기로 장식되었고 학생들이 대청 앞을 총을 메고 행진한 다음 각종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의 내용은 300보 경주, 600보 경주, 1350보 경주, 공던지기, 대포알던지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당나귀달리기 경주, 2인 3각 등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300보, 600보 등의 종목명은 1920년대에 100m, 200m 등 국제적인 경기종목명과 일치하도록 통일하였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서유럽의 스포츠를 한국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우리의 보수전통사회가 서유럽의 일반풍속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자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체육분야에서의 근대성 수용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 점이 바로 개화기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체육이 세계성을 지향하여 맹렬한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는 내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육상경기 붐이 조성된 것은 1936년 남승룡 선수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2시간 31분 42초의 기록으로 3위 입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38년 10월에는 남국민학교에서 손기정 마라톤 시범대회를 가짐으로써 순천 육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7년 4월 10일에는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남승룡은 코치 겸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고 후배들과 출전하여 2시간 48분 40초의 기록으로 10위에 입상하였다.

1946년 제2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기진 선수는 2시간 49분 46초의 기록으로 2위에 입상하였다. 그리고 순천사범 1회 졸업생인 윤정현 선수는 뒤늦게 우리나라 단거리의 기록자 김철환에게 사사를 하여 1952년 제33회 전국체전에서 110m 허들 1위, 400m 계주 1위, 그리고 전국선수권대회에서 100m 를 10초 07로 주파해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후 윤정현의 제자이며 별량 출신 국가대표 심상욱 선수는 1958년 동경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 800m 에서 1분 52초 3의 기록으로 동메달, 1500m 에서도 3분 59초 1로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시에서는 1959년 4월 24일 충무공탄신일 기념 순천시 초·중·고 육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66년 4월 9일에 순천에서 학구 간(왕복 22km) 호남고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육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삼산중·이수중·순천여중·주암중·순천고·순천여고에서 미래의 육상 국가대표를 향한 집념을 가지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995년부터 남승룡배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육상발전 및 시민건강운동에 앞장서고 있다.